

SPORTS ‘위즈덤 데뷔 첫 멀티홈런’ KIA, 최하위 탈출

2025년 4월 14일 월요일



SSG전서 11-5 승...올려 7이닝 4탈삼진 2실점 호투
위즈덤, 시즌 6·7호 아치...오선우, 5회 투런포 폭발

KIA타이거즈가 2연패를 끊고 최하위 탈출에 성공했다.

KIA는 13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5 신한 SOL Bank KBO리그 SSG랜더스와의 경기에서 11-5로 승리했다. 앞서 2연패를 기록했던 KIA는 이날 승리로 7승 10패를 기록, 리그 최하위에서 벗어났다.

KIA는 이날 타순을 박찬호(중견수)-오선우(지명타자)-나성범(우익수)-최형우(좌익수)-위즈덤(1루수)-변우혁(3루수)-최원준(중견수)-김태균(포수)-김규성(2루수)으로 짰다.

선발 투수로는 아담 율러가 나섰다. 총 95개의 공을 던진 율러는 7이닝 2피안타 4탈삼진 2실점으로 호투했다. 최고 구속은 154km였다.

율러는 1회초 상대 선두타자를 뜬공으로 처리했다. 후속타자 두 명은 삼진과 땅볼로 돌려세우면서 삼자범퇴 이닝을 만들었다. 2회초 역시 삼진과 땅볼, 뜬공으로 세 타석 만에 이닝을 마무리 지었다.

KIA는 2회말 선취점을 뽑아냈다.

선두타자 최형우가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를 때려냈다. 후속타자 위즈덤은 상대 3구째 136km 슬라이더를 건어 올려 좌측 담장을 넘어가는 투런포를 쏘아 올렸다. 이번 득점으로 최형우는 KBO 역

대 4번째 1300득점을 달성했다.

3회초에는 승부의 균형이 맞춰졌다. 상대 이치영이 친 타구가 1루 선상을 타고 흐르면서 2루타가 됐다. 후속타자 현희의 역시 비슷한 코스의 적시타를 때려냈다. 이후 최지훈의 희생플라이까지 나오면서 경기는 2-2 동점이 됐다.

율러는 4회초 삼진과 뜬공 2개로 삼자범퇴를 기록한 뒤 5회초 또한 범타 2개와 헛스윙 삼진으로 무실점에 성공했다.

5회말 KIA는 다시 격차를 벌렸다. 선두타자 김태균이 우측을 완전히 가르느 2루타를 터트렸다. 김태균은 김규성의 희생번트로 3루까지 진투했다. 이어 2사 3루 상황 타석에 들어선 오선우는 상대 초구 142km 직구를 그대로 받아쳐 중앙 담장을 넘어가는 투런포를 폭발시켰다. 지난 2023년 9월 12일 대구 삼성전 이후 579일 만의 홈런이다.

6회초 율러의 삼자범퇴 이닝 이후 공격에 나선 KIA는 6회말 비이닝을 만들었다.

선두타자 위즈덤이 좌익수 앞 안타를 기록했다. 변우혁 뜬공 이후에는 최원준이 좌익수와 3루수 사이에 떨어지는 안타를 생산했다. 후속타자 김태균은 볼넷으로 출루하면서 1사 만루가 됐다. 타석을 이어받은 김규성은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1타점 적



시타를 터트렸다.

친스는 계속됐다. 상대 투수 폭투로 최원준이 홈 플레이트를 밟았다. 1사 2·3루에서는 박찬호가 좌익수 앞에 떨어지는 2타점 적시타를 날리면서 경기는 8-2가 됐다.

7회초에도 등판한 율러는 뜬공 1개와 땅볼 2개로 또다시 무실점으로 이닝을 막았다. 7회말 1사에서 위즈덤이 또다시 홈런을 기록했다. 상대 3구째

144km 직구를 받아쳐 중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시즌 7호 홈런이자 KBO 데뷔 후 첫 멀티홈런이다.

KIA는 8회말 2점을 추가한 뒤 9회초 3실점으로 틀어막으면서 11-5로 경기가 끝이 났다.

이범호 감독은 경기 후 “율러가 투구 수 관리와 함께 7이닝을 책임져주면서 마운드에 안정감을 줬다”며 “타석에서는 위즈덤이 선제 2점 홈런과 함께 왜기포까지 터뜨리며 팀 공격을 이끌어줬고, 동점

상황에서 오선우가 결승 2점 홈런을 때려내며 승리에 큰 역할을 해줬다. 선발 타자들이 모두 안타를 기록하면서 활발한 공격력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팀이 힘든 상황이지만 오늘 경기를 계기로 좀 더 힘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홈장을 가득 채워 준 팬들에게 감사드리며, 다음 주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AI페퍼스, 아시아쿼터 1순위 와일더 지명

호주 출신 아웃사이드 히터...지난해 GS서 10경기 161점

“다시 기회를 받아서 기뻐...한국 돌아가서 시즌 준비할 것”

여자프로배구단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가 아시아쿼터 드래프트에서 아웃사이드 히터 스테파니 와일더(29·호주)를 뽑았다.

AI페퍼스는 지난 11일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 호텔에서 열린 2025 한국배구연맹(KOVO) 여자부 아시아쿼터 드래프트에 참가했다. 이날 구슬 추첨에서 전체 1순위를 차지한 AI페퍼스는 와일더를 지명했다.

신장 195cm의 아웃사이드 히터 와일더는 지난 2024-2025시즌 GS칼텍스 아시아쿼터 선수로 뛰면서 10경기 161점의 준수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오른쪽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팀을 떠났다. 회복 후 다시 아시아쿼터 드래프트에 나선 와일더는 전체 1순위로 AI페퍼스의 선택을 받았다.

와일더는 드래프트가 끝난 뒤 화상 인터뷰에서 “다시 기회를 받아서 정말 기쁘다. 한국으로 돌아가서 시즌 준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활 중이다. 발목은 느낌이 좋다. 하지만 아직 점프할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그러나

이달 말이면 점프 훈련이 가능할 것 같고, 7월이면 코트에서 실전 연습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I페퍼스에 합류하게 된 소감에 대해서는 “지난 시즌 인상 깊던 팀이었다. 도전적이고 끈질겼다. 원정 경기에서는 어려움을 겪기 마련인데, AI페퍼스 경기장은 편안함을 느꼈다”며 “빨리 코치진, 팬들과 만나고 싶다”고 전했다.

이번 여자부 아시아쿼터 드래프트는 지난해와는 달리 트라이아웃 없이 비대면 화상 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드래프트에서는 재계약 선수 2명을 제외한 43명이 5개 구단 선택을 기다렸다. 구슬은 지난 시즌 성적과 무관하게 7개 구단에 동일할 10개씩 배분했다.

기존 선수와 재계약한 흥국생명하고 한국도로공사의 구슬도 처음에는 함께 넣고 추첨했고, 1~3순위가 정해진 뒤에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이들의 구슬을 뺐다.

이에 따라 지명 순서는 AI페퍼스→한국도로



공사→IBK기업은행→GS칼텍스→흥국생명→현대건설→정관장 순으로 결정됐다.

전체 2순위 한국도로공사가 타나자와 재계약으로 지명을 건너뛴 가운데 3순위 IBK기업은행은 호주 출신 아포짓 스파이커 알라사 킨켈라를 지명했다. 4순위 GS칼텍스는 2023-2024시즌 흥국생명에서 뛰던 아웃사이드 히터 레이나 도쿄 쿠(등록명 레이나)를 선택했다.

5순위 흥국생명은 피치와 재계약했고, 6순위 현대건설은 일본 출신의 아웃사이드 히터 자스틴스 아우치를 호명했다. 마지막 7순위 지명권을 행사한 정관장은 지난 시즌 현대건설에서 활약한 아웃사이드 히터 위파위를 선택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KIA 광도규, 팔뚝 부상...1군 엔트리 말소

왼쪽 굴곡근 손상...서울서 재검

KIA타이거즈가 또다시 부상 악령에 휩싸였다.

지난 12일 광주-SSG랜더스전을 앞두고 왼손 불펜 투수 광도규가 부상으로 1군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KIA 관계자는 “광도규는 구단 지정병원에서 자기 공명영상(MRI) 촬영한 결과 왼쪽 굴곡근이 손상됐다는 소견을 받았다”면서 “14일에 정확한 진단을 위해 서울에서 재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도규는 앞서 11일 SSG전에 7회 등판해 8구를 던졌다. 그는 이날 안타 1개와 볼넷 1개를 내주고 2실점을 기록했다. 이후 불편함을 느낀 광도규는 곧바로 검사를 받았고, 왼쪽 굴곡근 손상 소견을 받았다.

굴곡근은 팔뚝에 있는 근육으로 손목과 손가락



을 굽히는 역할을 한다. 투수가 빠른 공을 던지는 데 핵심적인 근육이며, 가벼운 부상일 경우 휴식만으로 회복하지만, 심할 경우 인대 손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올해로 데뷔 3년 차를 맞은 광도규는 지난해 71경기에서 4승 2패 2세이브 16홀드 평균자책점 3.56으로 활약하며 프리미어12 국가대표 유니폼까지 입었다. 그러나 올 시즌 9경기에서 3홀드 평균자책점 13.50으로 고전했고, 부상 때문에 당분간 전열에서 이탈하게 됐다.

한편 앞서 부상으로 말소됐던 김도영과 김선빈은 14일 광주에서 재검진을 받을 예정이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김민주, KLPGA 투어 iM금융오픈서 첫 우승

투어 95번째 대회 만에 거둔 첫 정상

15언더파 기록 박주영 3타차로 제쳐

김민주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iM금융오픈(총상금 10억원)에서 감격의 첫 우승을 달성했다.

김민주는 KLPGA정규투어 95번째 대회 만에 첫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김민주는 13일 경북 구미시 골프존카운티 선산(파72·6683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1개로 5언더파 67타를 쳐 최종 합계 15언더파 273타를 기록해 우승했다. 우승 상금은 1억8000만원이다.

3라운드까지 선두에 2타 뒤진 단독 5위였던 김민주는 마지막 라운드에서 공동 2위 방신실과 박주영을 3타 차로 제쳤다.

종일 강풍이 불어닥친 이날 다른 선수들이 좀처럼 타수를 줄이지 못한 반면, 김민주는 1번홀(파4)과 6번홀(파5), 7번홀(파4) 버디를 잡아냈다. 9번홀(파5·547야드)에서 홀까지 20.6야드를 남기고 친 웨지샷을 홀에 집어넣어 버디를 기록하며 방신실과 공동 선두로 올라섰고, 10번홀(파5) 버디로 단독 선두가 됐다.

이후 파 행진을 이어가던 김민주는 17번홀(파3)에서 이날 첫 보기가 기록했지만 18번홀(파5) 버디로 먼저 경기를 마치며 우승했다.

김민주는 2022년 정규 투어에 데뷔해 쉐트리는 퀸즈 마스터즈 준우승이 최고 성적이었다. 2022년 상금 랭킹 26위, 2023년 44위, 2024년



35위를 기록했다. 김민주는 우승 후 “오늘 바람도 많이 불고 쉽지 않은 플레이를 하겠다 생각하고 마음을 비우고 노력했다”면서 “올해 우승이 첫 번째 목표였는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이뤄져서 이제 목표를 수정해야겠다”고 밝혔다.

김민주는 김민주는 “오늘은 ‘결과’는 정해져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자’고 자꾸 마음을 비우려고 노력했다”면서 “올해 우승이 첫 번째 목표였는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이뤄져서 이제 목표를 수정해야겠다”고 밝혔다.

한편 3라운드까지 박주영과 함께 공동 선두를 달린 방신실은 이날 1번과 3번 홀 버디로 한때 3타차 단독 1위로 치고 나갔지만 이후 오히려 2타를 잃어 김민주에게 역전을 허용했다.

2. 3라운드에 연달아 공동 선두를 달렸던 방신실과 박주영은 12언더파 276타, 공동 2위가 됐다. 이기영과 지한솔, 리슈ын(중국)이 나란히 9언더파 279타로 공동 4위에 올랐다.

송하중 기자

광주도시공사 女핸드볼, 6위로 시즌 마감

대구시청 22-25 패...승점 12점 유지

베테랑 선수 부재·부상 등 과제 산적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팀이 리그 6위로 시즌을 마무리했다.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11일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신한 SOL.페이 2024-2025 핸드볼 H리그 여자부 최종전에서 대구시청에 22-25로 패배했다. 이날 광주도시공사는 서야투가 10골(공격성공률 83.33%), 김지현이 7골(공격성공률 87.5%)을 넣으며 공격을 이끌었다. 이민지와 유정원은 각각 4세이브씩 기록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지는 못했다.

시즌 내내 부진을 면치 못했던 광주도시공사는 이날 패배로 5승 2무 14패 승점 12를 기록, 리그 6위로 시즌을 마감했다. 목표로 삼았던 플레이오프 진출과는 상반된 결과다.

광주도시공사는 올 시즌 역시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부상과 스타플레이어 부재로 허덕였다.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시즌 이아현과 한승미, 송해수 등이 큰 부상으로 시즌 아쉽게 됐다. 정현희 또

한 전지훈런 과정에서 무릎 부상을 겪는 등 팀 전체가 크고 작은 부상으로 골머리를 앓았다.

결국 올 시즌을 앞두고 광주도시공사는 원선필(PV), 이한솔(PV), 방민서(RW), 한승미(RW) 등 기존 선수들을 내보냈다.

이후 신인 드래프트 지명을 통해 3명의 선수(연지현-PV·김지선-CB·조연서-RB)를 영입했다. 특히 주전 선수의 부상 등으로 약세였던 퍼머(PV) 포지션에 즉시 주공격수 투입이 가능한 연지현(PV·한체대)을 영입하면서 전력 향상에 기대를 모았다. 또 박조은 골키퍼와 SK슈가글라이더즈에서 뛰었던 이민지와의 트레이드를 진행했다.

그러나 시즌에 돌입한 뒤 성적은 처참했다.

주전 공격수였던 강경민의 공백이 2년 연속 메워지지 못했다. 그나마 팀의 주축이었던 송해수가 리그 어시스트 1위 등을 달리며 분전했지만, 올 시즌에도 2번의 부상을 당하면서 자리를 비웠다. 여기에 지난 시즌 부상에서 복귀했던 이아현 역시 올 시즌 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정현희 또한 마찬가지였다.

베테랑 서야루는 꾸준히 두자릿수 득점을 올렸으나 혼자서 팀의 승리를 견인하기엔 역부족이었



지난 11일 신한 SOL.페이 2024-2025 핸드볼 H리그 여자부 최종전에서 광주도시공사 김금정이 패스를 하고 있다.

다. 결국 팀을 이끌 스타플레이어의 부재와 부상이 발목을 잡으면서 최종 성적은 리그 6위를 기록했다. 지난 시즌(7위)과 마찬가지로 하위권이다.

2019년 오세일 감독 부임 이후 3년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2021~2023)을 이뤄냈던 광주도시공사가 다시 강팀으로 올라서기 위해선 선수 수급과 부상 관리 등 다양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